

Sermon of the Week: The Era of Faith and the Risen Christ

Passage: Matthew 28:1-4 (ESV)

Date: April 20, 2025

Pastor: Dongsuk Chung

Today's passage describes the moment when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visited Jesus' tomb at dawn on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and became the first to encounter the risen Lord. This marks the beginning of the new creation. What is striking here is that the first person to meet the resurrected Jesus was not a religious leader, a scholar, or someone with power, but Mary Magdalene, a woman who had once been possessed by seven demons and had lived in utter despair. Though she had lived a life cursed by being held captive to Satan, Mary Magdalene had now become a new person, filled with Christ.

The risen Lord said to Mary Magdalene, "Do not be afraid," and instructed her, "Go and tell my brothers that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Before His resurrection, Jesus wa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but now, a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He calls us His brothers and refers to God as "your Father."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He has made us children of God and we now belong to Christ. This is the truth He reveals to us.

The world in the Old Testament was a male-centered era. But wit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 new era of creation began, spiritually speaking, it is the "era of the woman," because the Church has become the Bride of Christ. In this new era, we are called to embody three characteristics

of womanhood: the heart of a widow, the heart of a wife, and the heart of a virgin.

First, the heart of a widow holds a deep, sorrowful resentment and demands justice for the blood of her husband Jesus. It is a missionary spirit that proclaims with fire, "Believe in the blood of Jesus, whom you crucified!" Second, we are the Bride of Christ, who has come to us by the Spirit. We must not approach the Word of truth with intellectual scrutiny alone, but receive it as the bread of life from God, with a heart that fully submits to the Spirit. Third, we must be like virgins preparing for the return of the Bridegroom, Jesus. Like the five wise virgins who had ample oil in their lamps, w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dorning ourselves and preparing our hearts and bodies for His coming.

This "era of the woman" is an era of faith, not one of striving or earning, as under the law. The Lord has already accomplished everything, and we are called to believe and enjoy it. When we hear messages like the one about embodying these three aspects of womanhood, we must not say, "I'm not ready," or "I'm not like that," and thereby limit God's work. Instead, we should pray,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Give me the fullness of the Spirit to prepare for Your coming." If we hold this desire in prayer, the Lord will fulfill His Word in us through the Holy Spirit.

Repentance, too, is not a difficult thing. We often think repentance means confessing every single wrong I've committed, and so it feels burdensome. But true repentance, according to the Bible, is realizing that we have lived as our own masters, apart from God, and believing that Jesus has crucified that old self on the cross. It is confessing, "Now, Jesus must be the Lord of my life." Even

if rebellious thoughts still linger within us, we must accept by faith the truth that God has made us His children. As we agree with His Word and pray for it to be fulfilled in our lives, God will surely act.

In verse 16, the risen Jesus meets His disciples on a mountain in Galilee. A mountain, while the highest place on earth, is also the lowest place in heaven. It is the meeting point where the Word of God descends from heaven and is proclaimed to the earth. This encounter shows that believers are called to live not by the flesh but by the Spirit, governed by the life of heaven. Those who are born again now belong not to the physical, material world, but to the "second-floor realm", the spiritual realm of faith, where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fulfilled. So even when we face problems in this world, we do not struggle to solve them ourselves. Rather, we live by the faith that "the Lord has already finished it all."

Finally, in verse 18, Jesus declare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is means He has given His authority to us, who died and rose with Him. When He command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He is calling us to bring the truth and reality of the cross—the finished work—to all people.

Jesus promised to be with us until the end of the age. May we all receive and live out the Word given to us through His resurrection. May the Word become the reality in our lives and through our lives.

Please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s camera for the link to the YouTube video of the full sermon.



심니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8장 1-4절

날짜: 4월 20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시작의 날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도, 학자도, 권세자도 아닌 바로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저주를 표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충만된 완전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지만, 이제는 만물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시대는 영적 의미에서 '여성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시대에 우리는 세 가지 여성의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과부의 마음, 아내의 마음, 그리고 처녀의 마음입니다.

먼저, 과부의 마음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남편 예수님에 대한 원한과 핏값을 가진 마음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복음을 불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선교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으로 와 계신 예수의 아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이 영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단장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성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거나 노력해서 얻는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여자의 성품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 나는 이런 모습인데'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며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회개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행동에만 집중하여 하나하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존재임을 깨닫고 그 존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것을 믿으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나십니다(16절). 산은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하늘 생명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듭난 생명들은 이 땅의 물질세계가 아닌 '2층 세계,' 즉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영과 믿음의 세계에 속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에게 그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말씀의 진리와 그 실재를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 말씀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 모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1부 | 오전 8시 | 대예배실 |
| 주일예배 2부 | 오전 11시 | 대예배실 |
| 영어부 예배 (RHBC) | 오전 11시10분 | EM 예배실 |
| 수요예배 | 오후 7시 | 대예배실 |
| 유치, 유년부 (Seeds) | 오전 11시 | Seeds Room |
| 중, 고등부 (Abide) | 오전 11시 10분 |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 모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1부 | 오전 9시 | 대예배실 (지하 1,2층) |
| 주일예배 2부 | 오전 11시 | 대예배실 |
|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 대예배실 |
| 유치부 | 오전 11시 | 4층 예배실 |
| 유년 주일학교 | 오전 11시 | 2층 예배실 |
| 청소년부 | 오전 10시 30분 | 3층 예배실 |
| 청년부 | 오후 2시 | 3층 예배실 |



연합 찬양팀 소감 및 간증

아래는 KM & EM 연합 찬양 팀원들이 지난 부활절 찬양을 준비하고 부르면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나눈 내용입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최연정 지휘자님께서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준비하시며 함께하자고 제안해 주셨을 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육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제대로 부를 줄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내가 과연 그 유명한 헨델의 곡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부르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텐데,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유명한 헨델의 노래들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KM & EM 연합 합창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지휘자님께서 '아멘'을 부활절에 부르자고 결정하셨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헨델의 '아멘'은 예상 외로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열정을 다해 곡을 가르치시는 지휘자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찬양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차 안에서 홀로 찬양 연습을 하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세상 음악과는 달리 '아멘'은 힘든 제 마음을 매일 매일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던 형제 자매님들과 한 마음으로 '아멘'을 찬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인 것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 시간이 참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부활절 찬양을 마치고 여전히 노래도 할 줄 모르지만,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불렀던 헨델의 대곡, '아멘'이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다음 곡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폴 박

둘째 곡이 아멘이었는데 그 아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아멘이었어요. 부르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억지로 참았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은숙

나성 KM & EM 연합합창단,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늘 무대를 뒤로 떠나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천국에 머물다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랜드캐니언과 같은 자연에도 감동을 받지만 헨델의 메시아 한 곡 한 곡, 마디마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경이로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신마비의 고통과 절망들을 경험했던 헨델이 가사 대본을 받아 끼니를 잊을 정도로 메시아에 몰입했으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감동에 젖어 울기도 해서 자필악보에 눈물 자국을 남겼다는 기록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속에서 대곡을 완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들 속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최연정 자매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악기파트, 단원파트, 의상, 식사까지 일일이 챙기느라 오랜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악보에 충실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아름다운 연출을 위해 밤샘하며 고민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반주자를 많이 배려해 주셨음을 잘 알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꿈나무들에게 더 많은 무대가 제공되는 기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대에서는 만큼 자신감도 비례하니까요. 형제자매님들의 지원으로 이뤄진 봉사들도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Soli Deo Gloria!

이성희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 무사히 메시아를 찬양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표정 속에서도 음정이 받쳐 주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올라오네요. 그럼에도 은혜로만 들어주는 교우님들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긴 시간 연습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외인부대 같은 우리를 인내로 훈련한 최연정 자매님, 반주로 수고하신 이성희 자매님, 요즘 십대 같지않은 성실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연주해 준 꿈나무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피터 송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도님 간에 성령님이 감동하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나 하나의 잘하고 못함보다도 같이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찬양을 같이 하며 우리의 자아 처리를 하며 앞으로 오실 주님의 성호를 같이 찬양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교회생활에 어느 때보다 집중하게 되었어요. 주일 아침 연습, 오후에는 가끔 선교회,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면 다시 찬양 연습을 했고 수요일에도 연습이 있어 끝난 후에 수요일예배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세, 네 번 모여서 총 연습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런 모든 모임이 내 육은 죽고 은혜의 생활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떤 땀 육이 나와 갈등도 있지만 곧 은혜로 바뀌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 주일 찬양은 믿음의 승리와도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며 세상적인 시간을 아끼고 교회 생활에 집중되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김희정

분명히 부활절 찬양을 마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 주일 후 찬양팀 분들의 카카오톡 소감 메시지들을 여러 번 읽으며 주님의 부활, 승리, 구속의 찬양을 울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관통하시며 큰 기쁨으로 운행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울려 퍼졌던 영광의 찬양이 그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천국까지 영원히 울려 퍼짐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말처럼, 단순히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 같던 이 어려운 대곡을 우리 교회에서 찬양해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한마음으로 마귀 권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강력한 계시록의 말씀의 찬양으로 외쳐진,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한없는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와 성도님들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KM & EM 연합 찬양팀 참여하신 분들



- 지휘자: 최연정
- 피아니스트: 이성희
- 바이올린 1: 올리비아 강 (Olivia Kang)
- 바이올린 2: 이혜인 (Heyin Lee)
- 크리스탈 김 (Crystal Kim)
- 플룻: 애슐리 홍 (Ashley Hong)
- 트럼펫: 사무엘 김 (Samuel Kim)
- 팀파니: 크리스틴 정 (Christine Jeong)

- 소프라노: 김애나, 김희정, 유문주, 이미정, 이은숙, 조하영, 최은경 (파트장), 최델리아 (Delia Choi), 홍주는 (Joy Hong)
- 알토: 고경진, 김선애, 김지은, 손지혜 (Joyce Son), 이강임, 이성희 (파트장), 이옥남
- 테너: 김희정, 홍성훈 (파트장)
- 베이스: 김상준, 박풀 (파트장), 송피터, 이기영, 케빈 오캠프 (Kevin Ocampo)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
- 강준규 형제 (제 4,5남선교회) - 눈 망막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으로 인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으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 피터 송 집사 - 아들(폴 송)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 홍경아 - 한국에서의 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신 OO 집사 - 자녀(여고생)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고발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송주석 형제 (청년) - 목 디스크 탈출로 인한 척수증 때문에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선교소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나성교회 KM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 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
| 나성교회 EM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Ruth and Austin Kuklenski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5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나소식 웹사이트

<https://samnanews.modoo.at>



교회소식

부활절 특송 - KM & EM 연합찬양팀

지난 부활주일(4월 20일), 나성교회 KM과 EM 연합찬양단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3부 마지막 곡인 “죽임 당하신 어린양(Worthy is the Lamb)”을 찬양하였습니다.

메시아는 헨델이 1741년에 작곡한 작품으로,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수난과 부활, 승리의 구속사를 음악으로 풀어낸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시대를 망라한 걸작입니다. 이번에 찬양된 “죽임 당하신 어린양”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14절 말씀을 담은 곡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양, 그리스도 예수만이 능력과 부요, 지혜와 힘, 영광과 존귀, 찬송을 받으시며, 최후승리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우주 만물의 찬송을 영원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곡은 메시아의 마지막 곡이자 3부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으로, 찬양은 끝나지 않고 이 세상과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됨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고백합니다.

이번 연합찬양에는 합창 단원 23명과 플루트, 바이올린, 팀파니, 트럼펫, 피아노 등 7명의 악기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 1명이 함께 하여 총 31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 있게 찬양하였고, 그 찬양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로 남았습니다.

*삼나소식 3,4페이지에 연합 찬양팀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감 및 간증,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과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특송 영상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지난 부활절 특송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